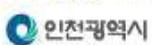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23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과	담당자	•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☎440-4301 • 담당자 이병일 ☎440-430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해상풍력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

- 인천해상풍력발전사업,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-
- 지역주민, 어업인들과 소통공감을 통해 공존상생하는 방안 찾을 것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 추진 예정지역인 덕적면과 자월면 각 도서, 용유·무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현재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용유·무의 인근 해상과 덕적해상(굴업도 남서측)에 각각 발전용량 300MW, 총 600MW, 예산 3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년부터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.
- 향후,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구가 소규모인 도서지역이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사정을 감안, 모든 도서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한 것이다.

- 설명회 일정은 ▲3월 24일에 문갑도, 굴업도, 백아도를 시작으로 ▲25일에는 지도, 울도, 소야도, ▲26일에는 덕적도(2회)에서 설명회를 실시하고, ▲3월 29일에는 승봉도, 소이작도, 대이작도, ▲30일 자월도, ▲31일에는 무의도와 용유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4월에는 어업인들에 대한 설명회도 계획 중이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, 어업인 분들과의 소통·공감을 통해 공존·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핵심일 것”이라며
- “이번 설명회에서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상생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·어업인 분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공존·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이미지

지역 상생협력방안

주민 수용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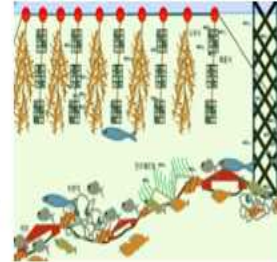
-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펀드 조성·공모

풍력단지 개발자와
지역주민간 간담회



- 해상풍력산업단지형
복합양식 지원조성
모델 개발

복합양식단지 내 생물
증식 개요도



주민참여모델개발 (이익공여)

- 지역주민들의 니즈
(Needs) 파악을 위한
소통 확대

예) 해상교통지원, 부두개발,
공원, 마트 등



수산업 공존

- 발전소 주변지역 지
원에 관한 법률(발주
법)에 따른 기금지원

(예) 주민편의시설 확충



주민숙원사업 발굴 및 지원

발주법에 따른 지원